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9월 9일(월)

윤석열 대통령, 발케넨데(Balkenende)

前 네덜란드 총리 접견

- 한-네덜란드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
-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9, 월) 한국을 방문 중인 「얀 페이터 발케넨데(Jan Peter Balkenende)」 前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하고, 한-네덜란드 양국 관계,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발케넨데 前 총리 재임 기간 : 2002. 7. 22 ~ 2010. 10. 14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고,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를 위한 발케넨데 前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작년 12월 네덜란드 국민 방문 계기에,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소중한 수확이라고 했습니다.

발케넨데 前 총리는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발케넨데 前 총리는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발케넨데 前 총리는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더욱 연계되어 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NATO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끝>